

태풍 영향권...내일 째뚱더위 식히는 소나기

광주·전남 5일째 폭염주의보 6일 대부분 지역 5~40mm 비

중부권은 나흘째 물폭탄 사망·실종 26명 피해 눈덩이

광주·전남지역에 연일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있는 가운데 중국에 머물고 있는 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6일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폭염에 시달리는 남부지방과는 달리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는 연일 집중호우가 쏟아져 사망자가 속출하는 한편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전남 대다수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주 광

산구 33.7도, 나주 다도면 34.8도, 곡성 옥과면 33.8도, 영광 군서면 33.4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4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 폭염주의보는 5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목포에서는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연세째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5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대기 상층부와 하층부의 온도차가 커지며 불안정해진 대기상태로 인해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5일 아침 최저기온 24~26도, 낮 최고기온 29~32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또 6일부터는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약화는 북한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쫓아 6일부터 전

남북서지역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에 초속 8~12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남부지방과는 달리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는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사망 13명, 실종 13명으로 인명피해가 잠정 집계된 가운데 이재민이 1000명을 넘어서고, 농경지 5751ha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으며 부상자는 7명이다. 이재민은 629세대 1025명이며 지역별로는 충북이 55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91명, 강원 70명, 서울 9명 등이다.

재산 피해도 늘고 있다. 1일 이후 시설물 피해는 모두 2958건으로 침수나 토사 유출

등 주택 피해가 815건이고 축사·창고 522건, 비닐하우스 146건 등으로 집계됐다.

농경지 피해 면적은 5751ha로 잠정 집계됐다. 침수가 4656ha이고 벼 쓰러짐(도복) 868ha, 낙과 160ha, 매몰 67ha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붕괴·파손·범람 등 피해는 도로·교량 728건, 철도 등 403건, 산사태 224건, 하천 101건, 저수지 19건 등이다. 계절리성 호우가 이어지면서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곳곳이 여전히 막혀 있다.

서울·경기·충청 등 지역에서 도로 44곳이 막혔고 충북선·중앙선·태백선·영동선·경강선·함백선 등 철도 6개 노선도 전체 또는 일부 노선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북한산·태백산·속리산 등 10개 국립공원 252개 탐방로와 경기·충북·경북 지역의 상습침수 지하차도 16곳, 서울·경기·강원·충북 지역 둔치주차장 92곳도 출입이 제한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보건교사들 코로나 '일폭탄'에 죽을맛

전교조광주지부 296명 설문 업무량 많아 감당 어려워 지침·매뉴얼 부재도 지적

광주지역 보건교사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일폭탄'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전교조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보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14~19일 광주지역 보건교사 29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보건교사 업무 실태를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코로나19 업무수행 때 가장 힘든 점으로 응답자의 57.1%가 '보건교사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을 첫 손에 꼽았다.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와 '감염병 대응 업무는 모두 보건교사가 해야 한다는 관리자의 인식', '매뉴얼

수정 때 현장의견 미반영 등 유관기관 잇박자'를 지적한 응답자도 각각 36.8%, 36.1%, 34.5%에 달했다.

미세먼지 전담, 공기질 측정, 정수기 수질검사, 시설 방역, 급수관 수질 검사, 공기정화장치 관리, 저수조 청소, 학내 사고 접수, 정수기 임대·필터 교환 등 법적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들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건교사들은 입을 모았다. 방역물품 수령, 역학조사 대응팀 운영계획 수립, 보건지킴이 활동지 지급, 열화상 카메라 구입·설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 등 새롭게 하달된 업무들도 적잖다.

이처럼 법적·비법적 업무에 잡무까지 늘면서 응답자의 92.6%는 '응급 상황 대응'으로, 50.3%는 '코로나 업무 증가'로 '본연의 보건수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들 광주시교육청 인권교육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지 안테나를 세워라'라는 주제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가운데 관련 교육을 희망한 초·중·고 7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학생선수가 운동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안을 역할극 형태로 쉽게 접근해 문제 발생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익수 광주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은 "역할극을 통한 체험 중심 인권교육을 통해 운동부 학생선수들의 성인식 감수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경로당 어르신들 시원하게 연일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4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경로당의 무더위 쉼터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지난해 쓰고 보관해뒀던 선풍기를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남구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7일까지 신청자 14명 모집

광주 남구가 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구는 4일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사회생활 참여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14명이며, 입국일이 빠른 사람부터 우선 선발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남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25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비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

증을 취득한 뒤 운전 면허증과 학원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신청서 접수는 거주지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구청 6층 여성가족과,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운데 한곳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여성가족과(062-607-3515) 또는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062-351-5432),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면허 취득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반도 구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2명에게 1988만원을 지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국 양쯔강발 저염분수 유입 비상...신안군 해양 모니터링 강화

대홍수로 유입 2배 가까이 늘어 동중국해 거쳐 이달 중순 도착

신안군이 중국발 저염분수 유입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대홍수로 인한 양쯔강 수량이 바다로 쏟아지면서 저염분수가 우리 서남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이에 대비해 지역 양식장의

피해가 없도록 해양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저염분수는 염분농도가 30psu 이하의 해수로,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분이 30g보다 적은 해수를 말한다. 염분이 없는 밀물이 바닷물과 만나면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해양생물이 저염분수에 노출되면 삼투압 조절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해 폐사할 수 있다.

지난 1996년과 2016년 제주와 남해안

에 저염분수 유입과 이상 고수온 현상이 겹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올해는 중국 남부지역에서 이어진 집중호우로 양쯔강 유출 수량이 평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달에는 수량이 8만 3200t까지 늘어났으며 7월22일에도 7만 7000t이 양쯔강에서 흘러나왔다. 이는 양쯔강의 평년 유출량 4만 4000t에 비해 2배 가까이 많고, 제주에 저염분수가 영향을 미쳤던 2016년 6만

6700t보다 1만 이상 늘어난 양이다.

해류와 바람에 의해 동중국해 북부 및 제주도 서부 해역을 거쳐 연안까지 이달 중순이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은 아직 중국발 저염분수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지역 내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학원의 조사 결과를 실시간 공유하며 대비할 예정이다. 장마와 태풍 이후 내륙의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섬들의 해양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양환경 정화활동도 펼쳐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전남 직업계고 졸업생 10명, 도 교육청 임용 시험 합격

전남지역 직업계고 졸업생(예정)생 10명이 올해 전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올해 하반기 고졸 출신 국가직 행정직 169명, 기술직 76명 총 245명을 전국 단위로 선발할 예정이어서 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선전이 기대된다.

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생을 배출한 직업계고는 목포공업고(건축 2명), 순천공업고(일반기계·전기 2명), 여

수석유학하고(일반기계 1명), 여수정보과학고(조리 4명), 전남조리과학고(조리 1명) 등이다.

전남에는 특성화고 43개교, 마이스터고 4개교 등 직업계고 47곳이 있다.

지난해 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한 전남 직업계고 졸업생은 전남도 지방직 41명, 전남도교육청 지방직 14명, 국가직 9급 19명, 서울시 공무원 1명, 부산시 61명 등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